강진 **최제영** 곡성 **김광휘** 광양 **김충권** 담양 **박종영** 무안 **이기성** 보성 **안구일** 순천 **김승호** 순천 **김종영** 여수 **김석철**

보성군, 2017년 위생관리 '3관왕'

음식문화개선, 식품·공중위생, 주방문화 우수

"소비자가 안심하고 찾는 외식 환경 조성"

보성군은 '2017년 위생관리' 부문 3관왕을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다.

전남도 주관 '음식문화개선', '식품·공중위생관리' 2개 분야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에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 '주방문화 개선사업'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군은 '음식문화개선' 평가에서 음식문화와 외식업 종사자의 경영마인드 혁신을 위해 추진한 '음식문화 아카데미',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 취득반', '아름다운 음식점 만들기' 등이 우수시책으로 인정받았다.

'식품·공중위생관리'에서는 깨끗한 음식·환경·복장 실천과 위생 앞치마, 수저받침 세팅지 위생용품 지원, 식중독 발생 제로화 등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주방문화 개선사업'은 조리종사자의 위생복·위생모 등 청결한 복장 착용, 캠페인, 주방문화 인식개선 및 교육 등 식품위생 수준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보성군 관계자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안전하고 건강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방문화 개선은 물론 남은 음식 재사용 근절, 위생용품 지원 등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보성=안구일 기자

고흥군 올해 일자리 29,226개 만든다

2018년 일자리 주요업무계획 수립

고흥군이 정부 일자리 정책에 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일자리 중심형 군정 업무체계를 구축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고흥군은 추진 중인 모든 사업을 총망라하여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 시책뿐만 아니라, 건설·관광·직업교육 등 간접일자리 사업까지 포함하는 '2018년 일자리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2018 주요업무계획과 일자리 역점과제, 기존시책 등 144개 사업에서 올 한 해 동안 고용 22,044명, 알선 7,182명 등 29,226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외, 일자리와 관련된 취·창업 교육도 9개 사업에서 1,388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실제 일자리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고용형태별로는 상시 일자리가 1,603개이고, 단시간 근로자 25,728명, 기간제 근로자 1,895명 등 임시 일자리는 27,623개로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는 업무계획 성격상 임시 일자리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원형태별로는 군비를 포함해 정부지원 사업으로 일자리가 창출되는 공공부문이 20,424개이고, 투자유치와 일자리 알선 등 민간부문이 8,802개로 나타났다.

고용방식별로는 군에서 직접 인건비가 투입되거나 관리되고 있는 직접고용이 3,539개, 도급, 위탁, 용역, 하청 등 간접고용이 16,819개이고, 민간고용은 8,868개로 조사됐다.

재원별로는 국비 96,017백만원(27.2%), 도비 6,897백만 원(2%), 군비 74,569백만 원(21.1%), 민자·자담 등이 175,204백만 원(49.7%)으로 총 352,687백만 원이 소요될 계획이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영광군, 주민 정보화교육 수강생 모집

영광군은 지식 정보화 시대를 맞아 군민의 정보화 수준 향상을 위한 2018년도 주민 정보화 교육을 일정을 확정하고 수강생을 모집한다.

교육과정은 컴퓨터 기초 및 인터넷, 스마트폰 활용, 한글, 엑셀 등 기본과정 외에 스마트 기기 보급 증가로 꾸준한 수요가 있었던 스마트폰 활용과 이미지 편집을 새롭게 신설하여 상·하반기에 각각 편성하였으며, 매일 2시간씩 2주간 진행된다.

15일 개강하는 주민 정보화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영광군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일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수강료와 교재비는 무료이다.

영광군은 앞으로도 군민이 자유롭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정보화 교육을 통해 주민들이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화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영광=서희권 기자

통기타부터 암벽등반까지…장성군, 문화·체육강좌 풍성

문화예술 3개 강좌·생활체육 5개 강좌 21일까지 회원 모집

장성군이 2018년 주민들을 위한 다채로운 문화·체육 강좌를 운영한다.

먼저 문화예술 강좌로 통기타, 색소폰, 난타 등 3개 교실을 운영할 예정으로 15일부터 수업을 시작하고 21일까지 회원을 모집한다.

모집규모는 강좌당 20명으로 선착순 접수 받으며 수강료는 무료다.

색소폰는 월요일과 목요일, 통기타은 화요일과 금요일, 난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까지 문화예술회관에서 매일 저녁 7시에 연중 운영되고, 실력에 따라 초급, 중급 등으로 나눠 참여할 수 있다.

참여하고 싶은 이는 문화시설사업소 사무실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생활체육 분야는 더욱 다양하다. 탁구(화,수,목,금), 골프(화,수,목), 요가(수,목,금), 에어로빅(월,화,수,목), 인공암벽(화,목) 등 5개 강좌가 운영된다. 특히 강좌가 열리는 당일 현장에서 신청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강좌 운영 결과를 토대로 인기있는 강좌 중심으로 개설했다"며 "특히 문화예술 강좌는 회원을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강좌일정과 문의는 장성군 문화시설사업소 홈페이지(http://culture.jangseong.go.kr)를 참고하거나 전화(061-390-847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장성군은 700석 규모의 대공연장이 있는 문화예술회관과 홍길동체육관, 군립도서관, 수영장 등 수준 높은 문화 체육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주민들의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고 여가 활동과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장성=반정모 기자

함평군, 우수학생 해외 어학연수 실시

영어경시대회 성적 우수자 20명…내달 4일까지 캐나다서

함평군은 1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캐나다에서 영어경시대회 우수학생 해외연수를 실시한다.

지난해 초·중학생 252명이 참여해 1차 필기, 2차 말하기 영어시험을 치렀다.

이 중 성적 우수자 20명을 선발해 언어와 해외 선진문화를 배우는 기회를 갖는다.

함평군수는 10일 함평엑스포공원 주차장에서 국외연수를 떠나는 학생들에게 "앞으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영어를 모국어처럼 할 줄 알아야 하다며 지금까지 다져온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여 많은 것을 배우고 발전하는 기회로 만들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특히 올해 연수는 집중 영어 교육 및 현지 가정에서 2~3명씩 홈스테이를 하면서 다양한 현지 문화체험을 병행해 연수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대도시에 비해 열악한 교육여건과 문화 혜택이 부족한 현실에서 인재육성을 위해 2007년부터 영어시험과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학부모와 학생들의 호응도가 높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함평=김광춘 기자

구례군 이장단, 공공비축미곡 매입 검사원 감사패 전달

구례군은 지난 8일 구례군이장단(단장 이무곤)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곡성·구례사무소 소속인 공공비축미곡 매입 검사원 3명(조인호, 나상규, 이철호)에게 군민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구례군은 지난해 11월 6일부터 공공비축미곡 매입 검사를 실시했으며, 2017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량은 전년 대비 117% 증가한 171,010가마로 역대 최대 물량으로 매입하였다.

또한, 등급실적 1등급 이상이 99%이며, 톤백 매입률은 전체 매입량의 90%를 차지하는 성과를 이뤘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